

## 오토포이에시스, 어포던스, 미메시스: 환경과 인간의 인지적 상호작용의 복잡성 해명을 위한 밑그림

심 광 현<sup>†</sup>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교수, 미학/문화연구

마음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오늘날 인지과학은 과거의 컴퓨터 모델이나 신경망 모델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뇌와 상호작용하는 신체와 상호작용하는 환경이라는 넓은 틀로 시야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로 등장한 <확장된 마음>이나 <체화된 마음> 혹은 <발제적 마음>의 이론들은 마음에서 환경으로 나아가는 길을 개척하는 데에 주력한 반면 마음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복잡한 과정 자체를 해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1960~70년대에 마음의 문제를 뇌와 신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선구적으로 해명하려 했던 김슨과 마투라나와 바렐라에게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김슨이 환경이 제공하는 어포던스에 방점을 찍었다면, 마투라나와 바렐라는 생명체의 자기생산의 자율성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이 제공하는 어포던스에는 불변적 요소가 존재하고 생명체 역시 고유한 자율성을 가지면서 어포던스의 가변적 요소와 환경에 대해 열려 있는 생명체가 함께 구조적 짝패를 이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럴 경우 김슨과 마투라나와 바렐라의 대립점은 해소될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벤야민의 미메시스 이론이 양자를 매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려 한다. 벤야민의 미메시스 개념에는 어포던스적 요소들을 체화함과 동시에 환경에 새로운 어포던스를 발제하는 측면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성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슨의 어포던스 개념과 마투라나와 바렐라의 체화와 발제 개념은 벤야민의 미메시스 개념을 매개로 할 경우 원활하게 연결되어 순환할 수 있다.

주제어 : 오토포이에시스, 어포던스, 불변성, 미메시스, 거울뉴런, 시스템 다이내믹스, 변증법

---

<sup>†</sup> 교신저자: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교수, 연구 분야: 미학/문화연구

## 들어가며

환경과 인간의 인지적 상호작용의 문제는 특정한 분과학문만으로는 규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차원을 함축하고 있다. 문제 자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신체와 <상호작용>하는 뇌와 <상호작용>하는 마음의 문제들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환경과 신체 사이에 다양한 매체들의 매개로 인한 굴절이라는 문제가 추가될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역동적인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사회문화적 환경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첩의 정도가 더해진다. 이 문제의 해명이 생물학이나 생태학, 신경과학의 프레임을 넘어서서 다양한 학문 간 통섭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지과학은 이 문제를 해명하려는 학문 간 통섭(consilience)의 최전방에 위치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지과학은 뇌와 마음의 관계, 혹은 뇌와 신체와 마음의 관계를 컴퓨터 모델이나 신경망 모델에 준거하여 해명하려는 미시적인 문제에 주로 집중해 왔기 때문에, 인간과 환경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라는 문제 전체를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런 문제를 천착하려는 시도들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김승은 인간의 지각을 인간과 환경의 생태학적 상호작용적 행위로 파악했고,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는 인지를 포함한 마음의 작용 전체를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적 구조접속(구조적 짝패 구성, structural coupling) 행위로 파악한 바 있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 모델이나 신경망 모델이라는 좁은 틀을 넘어서, ‘발제적 마음’(enactive mind)이나 ‘체화된 마음의 현상학’(phenomenology of embodied mind)(Thompson, Rowlands), ‘체화된 마음의 인지과학’(science of embodied mind)(Chemero), 뇌와 신체와 세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확장된 마음’(enlarged mind)(Clark), ‘의식의 생물학’(biology of consciousness)(Noë) 등으로 연구 방향이 확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은 마음의 범위를 환경으로 확장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는데 반해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과정 자체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해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환경의 구조적 영향을 강조하는 구조주의와 행위자의 능동적 경험을 강조하는 경험주의 간의 대립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과도 유사해 보인다.<sup>1)</sup>

이와 같이 환경과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해명하기보다는 양자 분리 상태로 머무는 경향은 1960~70년 대에 마음의 문제를 컴퓨터 모델이나 신경망 모델을 넘어서서 신체와 뇌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선구적으로 해명하려 했던 깁슨과 마투라나와 바렐라에게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깁슨이 환경이 제공하는 어포던스(Affordance)에 방점을 찍었다면, 마투라나와 바렐라는 생명체의 자기생산(Autopoiesis)의 자율성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환경과 인간/생명체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려면, 세 가지 측면이 규명되어야 한다. (1) 우선 환경이 생명체와 무관하게 지니는 상대적 자율성이 무엇이며 환경이 생명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2) 그리고 생명체가 환경의 단순한 일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니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3) 그리고 양자가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면서도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의 특성이 무엇인지가 규명되어야 한

---

1) 외부와 내부, 물질과 정신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서양철학사 전체를 관통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중세의 실재론 대 명목론의 대립, 근대철학의 유물론 대 관념론의 대립, 존재론 대 인식론의 대립, 경험론 대 합리론의 대립 등이 그것이다. 현대 인문사회과학에서 이런 대립의 대표적인 사례는 20세기 후반 라강주의 대 들뢰즈/가타리의 대립, 알튀세르의 구조주의적 맑스주의 대 E. P. 톰슨의 경험주의적 맑스주의 간의 대립, 20세기 중반 유럽 철학에서 나타난 구조주의 대 실존주의 간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에 확산된 생태주의 사상과 운동에서도 사회시스템의 변형에 초점을 두는 사회생태학과 개인의 삶의 양식 변화에 초점을 두는 근본생태주의 간의 대립에서도 유사한 대립을 찾아볼 수 있다(더 좁게는 분과학문에서도 심리학에서의 사회심리학과 개인심리학 간의 대립, 문학연구에서 제도론적 연구와 작가주의 간의 대립 역사학에서 제도사 연구와 생활사 연구 간의 대립 등이 있다). 한편, 이런 대립을 넘어서기 위한 드문 시도들도 이어져 왔는데, 연장 대 사유, 몸 대 마음의 대립을 넘어 양자의 평행을 전제한 스피노자의 철학,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통합한 칸트의 비판철학, 세계와 주체의 상호작용을 정·반·합의 운동으로 일반화한 헤겔의 변증법, 감성적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헤겔의 관념론과 포이에르바흐의 유물론 간의 대립을 넘어서서 추상과 구체의 변증법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맑스의 역사유물론, 칸트의 인식론과 맑스의 역사유물론을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한 벤야민의 정치상태의 변증법, 과학적 실재론과 비실재론의 대립을 가로지른 바스키아의 비판적 실재론, 구조와 행위의 대립을 합생의 과정으로 가로지른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필자는 이런 시도들을 지지하며, 이 논문에서는 벤야민의 독특한 미메시스 이론을 매개로 어포던스 이론과 오토포이에시스 이론을 연결하고자 한다.

다. 상호작용이 있어도 이 세 가지 측면이 동시에 유지되지 않으면 환경과 생명체는 각기 자율성이 강화되어 서로 무관해지거나 혹은 자율성이 약화되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김슨은 (1)에 대해, 미투라나/바렐라는 (2)에 대해 각기 비중을 두었기에 (1)-(2)-(3)의 측면 전체를 포함하는 상호작용의 복잡한 과정을 규명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고, 이런 편향은 대체로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김슨의 어포던스 이론은 지각 이론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서 생명체와 환경은 ‘공발생적’(concurrent)이며, 환경은 생명체에게 다양한 어포던스를 제공하고, 생명체는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어포던스를 직접 지각한다고 보기 때문에 유아론과 표상주의 심리학을 거부한다. 마투라나와 바렐라의 오토포이에시스 이론 역시 표상주의와 유아론을 모두 거부한다(마투라나 외; 140). 생명체는 물질적, 에너지 신진대사라는 차원에서는 환경과 상호작용하지만 신경적 차원에서는 작동적으로 닫혀 있는 자기생산 체계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이론은 전통적인 표상주의를 거부하며 환경과 생명체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김슨은 환경이 제공하는 어포던스에는 불변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 데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는 바로 이 지점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는 점에서 두 이론은 대립하고 있다. 필자는 이 대립점을 다음과 같이 해소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바렐라 등은, 생태적 환경에 존재하는 불변적인 요소를 생명체가 ‘끄집어 내 거나’ “주목하면” 되지, 구성하거나 연역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김슨의 이론은 환경과 생명체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며, 생명체의 구조적 통일성(자율성)만이 아니라 생명체와 환경의 ‘공규정’(codetermination)을 간과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Varela; 203~204). 만일 생명체의 자율성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환경과 생명체의 상호작용은 단순한 수사학에 그칠 뿐이라는 점에서 바렐라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이유에서 환경 역시 생명체에 대해 일정한 자율성을 갖지 않는다면 상호작용이나 공결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환경에는 생명체에 의해 구성되거나 발제(enaction) 되는 것 이외에 어떤 불변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김슨의 이론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김슨이 환경에는

가변적 요소와 불변적 요소가 공존한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환경과 생명체 각자가 각기 고유한 통일성/자율성을 유지함과 더불어 양자가 함께 변화할 때라야 양자가 상호작용한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환경이 제공하는 어포던스에는 불변적 요소가 존재하고 생명체 역시 고유한 자율성을 가지면서, 어포던스의 가변적 요소와 환경에 대해 열려 있는 생명체가 구조적 짝패를 이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깁슨과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의 대립점은 해소될 것이다.

2) 만일, 어포던스 이론과 체화된 발제 이론이 각기 한 측면에서만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포던스를 제공하는 환경과 체화된 발제 행위를 하는 생명체의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인지생태학적 메커니즘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과 생명의 상호결정, 상호규정을 일상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필자는 벤야민의 미메시스(Mimesis) 이론이 양자를 매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려 한다. 벤야민의 미메시스 개념에는 어포던스적 요소들을 체화함과 동시에 환경에 새로운 어포던스를 발제하는 측면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성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깁슨의 어포던스와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의 체화된 발제는 벤야민의 미메시스를 매개로 할 경우 원활하게 연결되어 순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sup>

이런 관점에 서서, 이하에서는 먼저 오토포이에시스 이론의 핵심 구조를 살펴보고, 그 내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어포던스 이론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 양자 간의 불필요한 쟁점이 해소될 경우 두 이론의 결합이 환경과 생명체 간의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인지적 상호작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왜 꼭 필요한지를 제시한 후, 양자 간의 결합이 벤야민의 미메시스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논증해 보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2) 오토포이에시스는 자기생산으로, 어포던스는 행동 가능성으로, 미메시스는 모방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원어에 내포된 다의적인 의미가 사상될 우려가 있어 이 글에서는 원어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 오토포이에시스 이론의 한계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에 의하면 생물의 인식은 외부에 있는 사물이나 물체를 그냥 가져다가 머리에 넣는 행위도 주어진 문제를 푸는 행위도 아니다 이들에 의하면 인식은 “한 세계를 내놓는(hervorbringen)” 반성적 행위이자, 생물이 “자기 존재 영역에서 갖는 작업효과(operationale Effektivität)”이며, “생물이 그 환경 안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행위”이다(마투라나 외; 35~40). 물론 이렇게 생물이 “한 세계를 내놓는 행위”는 허공 속에서 내던져지는 행위가 아니라, 환경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환경과 자기를 구분하는 자기생산 행위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 자기 생산 행위는 구조접속을 통해서, 1차 등급의 자기생산(세포), 2차 등급의 자기생산(메타 세포체), 3차 등급의 자기생산(신경망을 가진 사회적 개체) 개체로 진화해 나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생명체의 탄생에서부터 3차 등급의 자기 생산 체계로 진화해 나가는 과정의 핵심 기제는 <구조접속>(Strukturelle Koppelung)(구조적 짝패 짓기)이다. 구조접속은 개체와 환경 사이에서, 개체와 개체 사이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두 개의 자기 생산 체계들이 주고 받는 상호작용이 재귀적이면서 안정된 성격을 지녀야 하며, 상호작용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호섭동(mutual perturbation) 할 때 각기 자기생산 체계의 구조에 변화를 <유발>할 뿐 <결정>하거나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체에 대해서나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개체와 환경이 해체되지 않는다면 서로 맞물린 구조변화의 역사가 생길 것이다(마투라나 외; 83).

그런데, 구조접속의 과정에서 개체와 환경이 상호섭동에 의해서 각기 구조적 변화가 ‘유발’된다고 해도, 양자가 해체되지 않고 단지 구조변화의 역사를 겪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면 왜 생명체에게만 자기생산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환경에게는 그런 안정성이 유지되어서는 안 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생명체가 환경에 대해 변화를 유발했다고 해서 환경의 고유한 구조가 해체될 경우에는 환경 자체가 소멸될 수 있기에 환경의 구조적 안정성은 환경과 구조접속 하는 생명체가 자기 생산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구조접속에는 변하는 측면과 변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야 한다고 보

는 관점에서 보자면, 환경이 제공하는 어포던스에는 가변적인 측면과 불변적인 측면이 공존한다고 보는 김슨의 주장도 타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가 김슨의 어포던스 이론을 비판한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회로를 거쳐야 할 것 같다.

1) 우선, 양자가 모두 환경과 생명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면서도 김슨이 환경의 불변적인 구조적 측면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면,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는 생명체의 자기 생산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식으로 방점을 달리 찍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가 단순히 방점의 상대적 차이인지, 아니면 환경과 생명체의 상호작용의 복잡성에 대해 양쪽 모두에게 일정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방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지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김슨이 생명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간과한 것인지, 아니면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가 환경의 불변적 측면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따져 본 후에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2) 이 문제는 김슨의 이론이 구조적접속을 통한 자기 생산의 진화라는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의 이론 없이 생명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의 역사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지, 또 그와 반대로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의 이론이 김슨의 어포던스 이론 없이 환경과 생명체의 상호작용의 역사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과도 상응한다. 만일 설명할 수 없다면 두 이론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양자가 결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결합이 가능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벤야민의 미메시스 이론이 양자의 결합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을 마지막 절에서 논증할 것이다.

이러 진제 하에서 이하에서는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의 이론이 생명체와 환경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생명의 자기생산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기제를 설명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환경의 구조적 안정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봉착하는지를 먼저 살펴 보기로 하겠다.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에 의하면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생물의 구조적 역동성과는 다른 구조적 역동성을 갖는다. 이 둘은 구조적으로 접촉하더라도 작업상 서로 독립적이다. 이런 이유에서 환경과 생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기는 환경의 변화와 생물의 변화는 섭동작용에 의해 유발되기는 하지만 결정되는 것은 각각의 구조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섭동은 유발의 한 원천일 수는 있으나 명령의 원천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는 환경과 생명체의 상호작용에 따른 개체의 구조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 네 영역을 구분한다.

(1) 상태변화의 영역: 개체가 조직을, 곧 자기 부류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닌 채 겪을 수 있는 모든 구조변화

(2) 섭동작용의 영역: 상태변화를 유발하는 모든 상호작용

(3) 파괴적 변화의 영역: 개체로 하여금 조직을 잃게 하는 곧 특정 부류의 개체로서 그것을 해체시키는 모든 구조변화

(4) 파괴적 상호작용의 영역: 파괴적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섭동작용. 가령, 전봇대와 세계 부딪치는 일은 소형 자동차에게는 파괴적 상호작용이 되지만, 탱크에게는 그저 싱거운 섭동작용일 뿐이다. 개체가 환경과 파괴적 상호작용을 주고받지 않는 한, 관찰자인 우리는 환경의 구조와 개체의 구조가 서로 어울림 또는 결맞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환경과 개체는 서로 섭동의 원천으로 작용하면서 상태변화를 유발할 것이며, 이렇게 계속되는 과정이 바로 ‘구조접속’이다. 생물에게 독특한 것은 1차 등급의 개체이든 2차 등급의 개체이든 자기생산을 줄곧 유지하는 틀 안에서 구조에 따른 결정과 구조 접속이 실현된다는 점이다. 자기생산의 보존과 모순되지 않는 구조변화를 유발하는 상호작용들은 모두 섭동작용이 될 것이며, 보존에 결맞지 않은 상호작용들은 모두 파괴적 상호작용이 될 것이다(마투라나 외; 101~106).

그런데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는 환경과 생물의 상호작용에서 섭동이 생물에게 유발하는 구조변화 혹은 구조의 파괴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 데 반해 섭동에 의해 환경이 겪는 구조 변화 혹은 구조의 파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가령 자동차가 부딪친 전봇대는 구조변화를 겪어도 그 구조가 파괴되지 않을 수 있지만, 탱크에 세계 부딪친 전봇대는 전체 구조가 파괴될 수 있다. 또는 빌딩은 폭탄에 의해 구조가 파괴될 수 있지만, 큰 산은 폭탄에 의해 지표면의 일부가 구조변화를 겪을 뿐이지 전체 산의 구조는 파괴되지 않는다. 나아가 산과 들판은 계절에 따라 지표의 색깔이 변화하고 식물들의 성장이 변화하는 식으로 지표면 구조의 변화를 겪지만 전체 지형의 윤곽 구조는 변화하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생물의 자기생산 체계의 구조가 유지되거나 파괴되었듯이 환경의 구조 역시 유지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 그런데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는 생물이 자기생산 체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겪는 진화의 과정을 구조접속의 관점에서 자세히 기술하는 데 반해서, 환경이 자기 구조를 유지하면서 겪는 변화에 대해서는 기술하는 바가 없다. 이런 기술방식은 환경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게 구조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의 구조가 파괴될 경우에는 구조접속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진화의 과정이 중단되거나 급변할 것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는 “구조접속은 언제나 상대적이어서 유기체와 환경 모두가 변화를 겪는다”(마투라나 외; 108)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은 생물의 개체발생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천을 “유기체와 환경의 구조적 어울림, 즉 적응력을 보존한 채 일어나는 구조변화의 표류”라고 보는 측면에만 강조점을 찍지, 환경의 섭동에 의한 유기체의 구조적 파괴, 혹은 환경 자체의 구조적 파괴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상대적 무관심은 환경과의 구조접속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생물의 측면에서 보면 타당할 수 있지만, 생물과의 구조접속이 아니라 그 자체의 내적 변화에 의해 구조적 파괴를 겪게 되는 환경의 입장에서 보면 적절하지 못한 기술이다. 나아가 그렇게 파괴된 환경에 머물다가, 가령 화산폭발에 의해 갑자기 사망할 수밖에 없던 생물의 입장에서도 적절한 기술이 아니다. 이런 파괴적인 과정에서 환경의 변화는 생물의 구조변화를 단순히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생과 사의 갈림길로 내모는 <명령>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개체에게 일어난 구조 변화는 그 개체와 줄곧 상호작용하는 환경이 ‘선택자’ 처럼 보인다”(마투라나; 108)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의 기술은 부적절하며, <실제로 선택자로 작용한다>고 기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이들이 기술하듯이 “생명은 산소를 퍼뜨림으로써 지구 대기에 큰 변화를 일으켜 오늘날 산소는 지구 대기 안에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마투라나 외; 108)기에 생명이 환경에게 선택자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명체와 환경이 서로에게 선택자로 작용할 수 있다면, 이들이 다윈의 <자연 선택> 개념을 <자연적 표류> 개념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오히려 환경과 생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환경과 생물의 구조가 파괴될 경우에는 <자연 선택>의 개념을, 환경과 생물의 구조가 변화하더라도 해체되지 않고 자기조직화를 유지함으로써 구조적 지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연적 표류>의 개념을 구별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볼 때 환경과 환경 내부의 다른 개체들과 다층적인 구조적 지속을 통한 자연적 표류 과정으로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는 방식은 환경 자체의 구조적 안정성(가령 어포던스의 불변적 요소)이나 구조적 파괴라는 측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괄호>친 채 개체들 간의 구조적 지속의 자연적 표류와 자기생산개체의 자율성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낭만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그런데 구조적 지속이 유지되면서 자기생산 개체의 자율성이 지속가능 하려면 애초에 구조적 지속의 기반이라고 할 환경의 구조 자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구조적 지속에 의한 자연적 표류를 주장하는 이들이 어포던스의 불변적 구조를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기반을 부정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렇게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의 구조적 안정성을 반드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토포이제시스 이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포던스 이론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어포던스 이론의 필요성

김슨은 지속(persistence)과 변화(change)가 함께 인지되려면, 광학적 배열의 바탕에 불변적인 것(invariants)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불변적인 것을 김슨은 4가지 유형으로 구별한다. ① 조명(illumination) 변화의 바탕에 있는 불변적인 것, ② 관찰자의 시점 변화의 바탕에 있는 불변적인 것, ③ 중첩되는 표본(samples)들의 변화의

바탕에 있는 불변적인 것, ④ 구조의 국지적 교란의 바탕에 있는 불변적인 것이 그것이다. 그는 광학적 배열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변화들은 기하학과 위상학의 용어를 빌어 말하자면 사상(mapping)이라는 의미에서의 변형들로 이해될 수 있다면 문제가 더 단순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4가지 유형의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조명 변화의 바탕에 있는 광학적 구조의 불변적인 것들

태양 빛이나 달 빛, 램프의 빛들은 양, 방향, 스펙트럼의 구성 등에서 변화할 수 있고, 공기와 같은 매개체 속에서 광학적 배열의 몇몇 특징들도 그와 함께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표면들과 표면들의 상대적 윤곽, 그리고 표면들의 상대적 반사율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불변적인 것들이 있어야만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것들 대부분은 분명히 광학적 배열의 부분들 사이에 강도와 색깔의 일정 비율을 포함하고 있다.

#### ② 시점의 변화의 바탕에 있는 광학적 구조의 불변적인 것들

관찰 시점의 다른 지점은 상대적으로 사람의 한 눈에 의해 점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편차를 가로지르는 불변적인 것은 머리를 움직일 때 발생하는 변화 아래에 놓은 불변적인 것과 같은 것이다. 광학적 배열에서 어떤 변화들은 그것이 품고 있는 형태들의 변형들이지만, 주된 변화는 형태의 획득이거나 상실이다. 즉 표면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의 증가나 감소이다. 그러나 그런 증감의 아래에는 외삽과 내삽, 경사도, 수평선의 비율이 변하지 않고 남아 있다. 요약하자면, 광학적 배열의 흐름은 그 흐름 아래에 놓인 구조를 파괴하지 않는다.

#### ③ 에워싼(ambient) 광학적 배열의 표본들을 가로지르는 불변적인 것들

<둘러 보기>에는 전체 배열에 걸쳐 시각장(field of view)을 앞뒤로 가역적이게 쓰레질(sweeping)하여 연속적으로 중첩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미끄러지는 표본에는 하나의 공통의 구조가 있을 것이며, 이것이 불변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④ 구조의 국지적 교란의 바탕에 있는 에워싼(ambient) 광학적 배열의 불변적인 것들**

태양의 운동, 관찰자와 관찰자의 머리의 움직임 이외에도 국지적인 사건들이 있다. 거기에는 고체의 분리된 대상들(rigid detached objects)의 이동과 회전만이 아니라, 움직이는 공에서 떨어지는 물에 이르는, 자라나는 아이로부터 미소 짓는 끈(lace)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탄력적인 표면들의 변형(deformation)이 있다. 그 각각은 광학적 구조의 특수한 교란을 야기한다. 그러나 표면과 공과 물과 얼굴은 광학적 구조의 어떤 비-교란적인 것들에 의해서 그 자체로 연속적인 것으로 보인다(Gibson; Appendix 2, pp. 310~311).

김슨은 자신의 책을 마무리 하면서 지각에서 불변적인 것에 대한 연구의 향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네 가지 불변적인 것들은 광학적이다. 그러나 청각적, 기계적, 그리고 아마도 화학적 자극의 흐름 속에도 분명히 불변적인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광학적인 것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아마도 증명될 것이다. 불변적인 것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 중에 있다. 하나의 시각 체계에 의해서 불변적인 것을 추출하는 이론은 지각에서 항구성(constancy) 이론의 자리를 차지한다. 즉, 그것은 지각이 기반하고 있는 감각 인상들이 거칠게 요동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관찰자가 대상의 진짜 색깔, 크기, 형태,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지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불변적인 것(Invariants)을 갖게 되면 항구성 이론(theory of constancy)이 필요 없게 된다. 그러나 독자들은 불변적인 것의 탐지는 지각의 항구성 이론에 하나를 더 추가한 것일 뿐이라는 엠프스타인(Epstein, 1977)의 연구를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용어와 개념들은 지각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이 명료해짐에 따라 개정될 것이다.”(Gibson; Appendix 2, 311)

이렇게 지각에 불변적인 것이 있다고 보는 김슨의 주장은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가 말하는 구조접속의 필요조건 즉, “개체가 조직을, 곧 자기 부류의 정체를

그대로 지닌 채 겪을 수 있는 모든 구조변화”라는 측면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개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섭동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환경과의 구조적 지속을 지속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는 주장은, “내부 환경의 상대적 항구성(constancy)을 항상성(homeostasis)”이라고 보는 생리학의 일반적인 정의와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깃슨의 어포던스 이론에서 지각의 불변성이 몸의 항상성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다는 점과 외부 환경 자체에 불변성이 있다고 보는 것 사이에는 -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 어떤 모순점도 없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몸의 내부 환경이 유지하는 놀라운 항구성(constancy)은 19세기 후반 베르나르에 의해 주목되었고, 20세기 초반 캐넌에 의해 <항상성>(homeostasis)으로 개념화되었고, 현대 생리학의 기본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생리학에서는 몸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리적 기전은 오로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생리학에서 말하는 항상성은 절대적 항상성이 아니라 상대적 항상성이다. 음성 피드백 고리에 의해 몸이 한계점(set point)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감지기(sensor)와 통합중추와 효과기(effector) 사이에서 지속적인 교정 반응이 있기 때문에 항상성은 언제나 동적 항구성(dynamic constancy)을 유지한다. 몸의 내부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서 몸의 한계점은 집안의 자동온도조절기에 입력된 온도값과 유사한데, 몸에는 체온, 혈액 포도당 농도, 힘줄의 장력 등에 여러 종류의 한계점이 있다. 몸의 항상성은 내인성과 외인성 조절기전에 의해 유지되는데, 내인성 조절기전은 기관 자체에 존재하는 조절기전이고, 외인성 조절기전은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의해 조절된다. 내분비계는 몸의 대사과정을 조절하여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계와 밀접하게 협력한다. 가령 신경계는 내분비계의 호르몬 분비를 통제하고, 역으로 호르몬은 신경계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폭스; 4~6).

그런데 항상성이 음성 피드백 기전에 의해 유지되는 것과 다르게 양성 피드백 기전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효과기의 작용은 효과기를 자극했던 변화를 오히려 증폭시킨다. 어떤 음성 피드백의 고리의 효과는 음성 피드백 반응의 작용을 증폭시키는 양성 피드백 기전에 의해 증가한다. 예를 들어, 혈액 응고는 응고 인자의 연쇄적 활성화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데, 한 응고인자의 활성화가 많은 반응을 다단계 양성 피드백으로 활성화한다. 이처럼 하나의 변화가 증폭하여 혈액응고를

일으킨다. 궁극적으로 생리적 항상성은 양성 피드백 기전보다는 음성 피드백 기전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폭스; 6).

이렇게 볼 때 음성 피드백 기전에 의한 생명체 내부 환경의 항상성 유지는 다양한 구조접속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섭동에 의해 생명체가 파괴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과정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각-행위가 몸의 항상성을 파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닌 한 지각-행위의 작용은 외인성 항상성 조절기전인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항상성 메커니즘에 통합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생명체의 지각의 불변성은 몸의 항상성 기전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김슨이 말한 어포던스의 불변적 측면은 환경의 객관적 구조라는 측면에서만만이 아니라 몸의 생리학적 항상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환경이 제공하는 어포던스에 불변적인 것이 있다는 것과 생명체 내부 환경의 항상성은 환경과 생물의 상호작용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때 생명체의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란 물리적인 불변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학적이고 생리학적 차원에서 한계점 내에서 동적 변화를 항상 포함하는 동적이고 상대적인 불변성 혹은 항구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령 지구 표면의 지질학적 윤곽과 표면에 존재하는 광물질과 동물 및 식물들과 같은 대상들, 태양의 빛과 대기 중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분포와 바람의 흐름과 같은 매개물이 각기 일정한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생명체는 생존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환경이 생물에게 제공하는 어포던스는 생물의 지속 가능한 삶에 필요 불가결한 한계점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홍적세 때와 같이 지구의 물리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지구가 제공하는 생태학적 어포던스는 한계점을 넘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포던스의 한계점과 어포던스 자체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며, 생물은 이 한계점 내에서 환경과의 구조접속을 통한 자기생산 체계를 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포던스의 객관적 실재성을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어포던스 이론과 생물의 자기생산 체계의 주체적인 자율성에 기반한 구조접속의 진화에 초점을 맞추는 오토포이에시스 이론이 외견상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생물의 상호작용의 다층성과 역동성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되지 않

으면 안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가 정반대 방향으로 정향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론적 매개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벤야민의 독특한 <미메시스> 이론이 두 이론을 연결하는 데 생산적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살피고자 한다.

### 벤야민의 미메시스 개념의 신경과학적 해석<sup>3)</sup>

1920~30년대에 독특한 미학이론을 제시했던 발터 벤야민의 미메시스 이론이 오토포이에시스 이론과 어포던스 이론을 매개할 수 있으려면 양자와 일정하게 공통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미메시스 이론이 어떤 면에서 두 이론과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벤야민의 미메시스 개념이 단순한 미학적 비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신경과학적으로 타당한 측면을 가진 과학적 개념으로 재해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라야 어포던스 이론과 오토포이에시스 이론 사이에서 과학적인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벤야민에게 미메시스는 단순한 복제(Replication)나 복사(copy), 혹은 재현(representation)을 넘어서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주체가 환경 혹은 대상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적 상응관계>를 포착해내는 어떤 능력이라는 의미가 그것이다. 이런 자연적 상응관계의 일례로, 그는 미메시스가 미메시스의 대상에 대해 갖는 변증법적 관계를 “압지의 비유”를 들어 잉크가 압지를 빨아들이듯이 미메시스의 과정을 통해 그것의 객체가 가진 마법적 힘이 주체로 전이한다고 보고 있고 이 과정은 객체가 주체에 의해 변증법적으로 극복되는 역사적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한다(최성만; 49). 미메시스의 이런 개념화는 표상주의적 접근을 비판하면서 어포던스의 직접 지각이 가능하다고 본 김슨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또 벤야민은 미메시스 능력은 인간이 주변세계에 적응하도록 한 원초적이고도 긍정적인 능력으로서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모두 소멸되는 대신 언어 능력으로 그

3) 이 절에서 벤야민에 관한 기술의 상당 부분은 심광현(2013)에서 발췌한 것이며, 일부는 새로 작성한 것임.

힘이 이전되었다고 보기도 한다(최성만; 54). 이런 측면은 언어 능력을 2차등급의 자기생산 개체가 3차등급의 자기생산 개체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신경계적 구조접속으로 설명하는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의 설명과 일정하게 공명한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과 인간의 상응관계라는 의미를 가진 벤야민의 미메시스 개념이 어떻게 문학적 비유를 넘어서서 신경과학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도록 하자. 벤야민은 주변세계에 대한 적응을 위해 자연적 상응관계를 포착해내는 미메시스의 능력을 태고적부터 인간에게 내재한, 이후에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 무의식적으로 잠재해 있는 인간학적인 최상위 능력으로 설정한다(최성만; 49).

“자연은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는 의태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것을 생산해내는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는 인간이다……어쩌면 인간이 지닌 상위의 기능들 가운데 미메시스 능력에 의해 결정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기능은 없을 것이다……. ‘쓰여지지 않은 것을 읽기’. 이러한 읽기가 가장 오래된 읽기이다 그것은 모든 언어 이전의 읽기, 동물의 내장, 벌들 또는 춤에서 읽기이다. 나중에 룬 문자나 상형문자와 같은 새로운 읽기의 매개체들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들이 한때 신비적 행위의 토대였던 미메시스적 재능이 문자와 언어로 진입하게 된 단계들이 되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가정해 볼 수 있다.”(벤야민(1); 211~216)

미메시스 능력에 의해 인간이 지닌 상위 기능들이 결정적으로 규정되었다는 이런 주장을 그 자체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현대의 신경과학은 이런 구절들의 의미를 해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탈리아의 신경과학자 자코모 리졸라티(Giacomo Rizzolatti)는 마취상태의 원숭이의 행동뉴런에 아주 정교한 측정장치를 연결하여 자신이 행동할 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관찰을 통해 신경생물학적 공명현상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신경세포를 <거울뉴런>이라고 불렀다(바우어; 22~26). 거울뉴런의 발견 이후 여러 후속 연구들은 원숭이의 경우만이 아니라 인간의 경우에는 어느 포유동물들보다도 거울뉴런의 분포와 밀도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21세기에 들어와 가장 중요한 뇌의 회로들에는 거울뉴런이 밀집해 있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었다.

우리 뇌의 중요한 기능들은 거의 모두 거울뉴런과 연결되어 있다. 일례로 측두엽에 있는 <상측두고랑>(superior temporal sulcus: STS)은 시각정보를 해독하고 해석하는 장치로서 운동을 담당하는 거울뉴런과 감각 혹은 감정을 담당하는 거울뉴런들에게 정보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 거울뉴런이 전혀 다른 거울반응을 일으키도록 한다고 한다. 이 장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도 움직이게 한다. 이처럼 동일한 곳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즉각적 행동을 ‘공동 주의’(joint attention)라고 한다(바우어; 50~53).

거울뉴런의 기능이 무의식적으로 타자의 행동과의 신경생물학적 공명을 가능케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의 발견, 그리고 인간의 뇌에는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거울뉴런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의 발견은 벤야민이 <자연적 상응관계>를 포착하는 능력이라고 불렀던 미메시스 능력이 인간의 상위 기능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던 가정을 과학적인 사실로 입증해 주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거울뉴런에 의한 거울반응은 독자적으로 발달하지 않으며 반드시 상대가 필요하다. 만일 상대가 없으면 거울뉴런의 신경세포는 결국 기능을 잃고 만다. 태어난 지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난 유아는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특정 인상을 즉각 모방하기 시작한다. 상대가 입을 벌리면 아기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즉각적인 모방을 할 수 있는 신경생리학적 장치 덕분에 유아는 맺는 최초의 인간관계이다. 유아와 가장 친근한 사람과의 관계는 연애 초기의 남녀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다. 두 사람은 상호 신호를 바탕으로 상대가 관심을 가지는 것들을 만지고 느끼며, 이에 대해 신호를 보내고 상대에게 반응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이처럼 놀라운 거울놀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유아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놀이친구는 부모이며, 이들은 아이를 낳을 때 아이와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별한 물질을 얻게 되는 데 이것이 옥시토신이다. 만일 부모가 놀이 친구가 될 수 없으면 사랑이 풍부한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해도 좋지만, 단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부모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바우어; 56~57).

이로써 벤야민의 미메시스 개념의 타당성과 미메시스 능력의 중요성은 신경과

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인지심리학자들은 거울뉴런의 기능을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한정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통해 발달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교육학적 관심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벤야민에게서 미메시스 능력은 단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한정되지 않고 진화과정에서 숙성된 자연적 상응관계의 복잡한 전체라는 지평으로까지 확장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장식은 춤에 근접해 있다. 장식은 유사성을 만들어내는 학습과정 중 하나이다……춤을 해석할 때 그 춤이 지닌 역동적 측면 - 무기, 도구, 영(靈)들로의 에너지 전이 -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그 역동적 측면은 춤추는 사람의 미메시스적 태도와 변증법적 관계에 있을 것이다.”(벤야민(2); 324)

“장식은 미메시스 능력을 위한 전범이다. 이러한 추상은 감정이입을 위한 고도의 교본이다. 아우라의 경험과 점성술의 경험 사이에 연관이 존재할까 별들이 시선을 되돌려주는 지상의 생물이나 사물들이 있을까 별들은 먼 곳에서 보내오는 그 시선 때문에 아우라의 근원현상일까? ……우리는 결국 별들의 만남이 장식의 탄생에 관여했다는 가정, 장식은 별들의 시선을 불박아둔 것이라는 가정으로 이 순환을 종결지어도 될까 이 연관에서 인간 안에 있는 미메시스 능력의 중심들에서 양극성이 생겨날 것이다 그것은 눈에서 시작하여 입술에 이르는 전이 과정으로서 이때 이 과정은 신체 전체를 우회하며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신화의 극복 과정을 포함할 것이다.”(벤야민(2); 325~326)

이 두 문장에는 인간에게 가장 먼 것으로부터 가까운 것들에 이르는 다양한 사물과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들을 순서대로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별들이 시선을 되돌려 주는 지상의 생물이나 사물들-->아우라의 경험-->장식-->춤-->춤추는 사람의 미메시스적 태도와 능력-->눈에서 입술로 이르는 전이 과정-->우회로로서의 신체 전체-->신화의 극복 과정]. 그런데 별들과 입술의 거리는 너무나 멀고 그 사이에 매개된 것들조차 보통은 서로 무관한 것이기에 이런 것들

이 미메시스적 태도 및 능력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으며 이런 연계들을 통해서 신화의 극복이 가능할 수 있을지는 정말 신비로운 수수께끼를 상대하는 것처럼 어렵게 생각된다. 이 문제를 푸는 데에서도 신경과학의 도움이 가능할까

1) 신경과학자 로돌포 이나스(Rodolfo R. Llinas)에 의하면 뇌는 부담을 줄이려는 타고난 경제원칙으로 인해 높은 진동수의 청각신호를 낮은 진동수의 활동으로 바꾸며, <외부 세계의 성질의 기하학>을 <내부 기능 공간의 기하학>으로 <단순화>하면서 실재를 따라잡는다. 이런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뇌는 개별감각들을 하나의 집합체처럼 작용하게 하거나 한데 섞이게 해주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감각질을 통해서 이 집합체들을 단순화하는 패턴을 제공하고 판단과 예측을 위해 체계 안으로 재입력되도록, 즉 지각 풍경의 일부가 되게 해줌으로써 신경계의 작동을 돕는다(이나스; 312). 이나스에 의하면 이와 같이 <단순화하는 패턴 만들기>가 바로 동물의 뇌에서조차 발생하는 <추상>이다.

“전신의 맥락 안으로 운동을 집어넣기 위해서, 동물은 먼저 어떤 유형의 내부 ‘이미지’를 만들어 내거나 전체로서의 자신을 묘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이나스; 317)

이나스에 의하면 바로 이와 같은 전체로서의 표상 이미지의 형성이 바로 추상이 시작되고 자아가 등장하는 <원시적 초월사건>이다(이나스; 318). 이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의 추상으로서 내부사건인데 이것이 바로 <전(前)운동 상태의 감정>이다.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주어진 감정에 의해 ‘대뇌기저핵’에서 풀려난 FAP(Fixed Active Pattern)의 표현을 통해서만 추리할 수 있다. 개가 으르렁거리면서 나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 개는 나를 보는 게 즐겁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이나스; 319).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얼핏 모호하게 보이기 쉬운 벤야민의 문장들이 지닌 엄밀한 의미를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미메시스 능력의 전범으로서의 장식이란 “외부 세계의 성질의 기하학을 내부공간의 기하학으로 단순화하는 “감각질의 추상적 패턴화 능력”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상 자체가 내부 사건인 감

정이기 때문에, 장식적 추상이 감정이입의 교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장식은 별들의 시선을 붙박아 둔 것”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2) 감정이입으로서의 추상은 진화상으로 매우 중요한 기제이다. 이나스는 악어가 이빨을 드러냈을 때 나는 어떻게 그 악어가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놓는다. 동물은 자신의 운동의 결과를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유일한 길이 모방이라는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이 이빨을 드러낸(FAP) 모습을 볼 수 없지만, 화가 나서(감정상태) 공격할 태세일 때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안다. 모방이란 다른 동물이 표현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운동 행동을 복제하려는 시도를 말하며 이런 이해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일반화된(Theory of Mind).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패턴 인식은 전적으로 맥락에 의존한다. 이것이 바로 나일강에서 잡은 악어를 아마존강에 집어넣고 살아남기를 기대할 수 없는 이유이다. 거기에는 더 이상 친숙한 패턴도 없고 이미 형성된 내부와 일치하는 외부 세계도 없다. 그 악어는 주변의 어떤 것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 악어는 외부와 내부의 일치를 추구하는 추상을 빼앗긴 것이다. 다른 예로는, 최근 마이크로 칩으로 인공꿀벌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춤추고, 다른 진짜 꿀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다 함께 먹이를 찾아 전속력으로 날아가기도 한다. 그것은 정말 꿀벌일 필요가 없고 그저 상당히 가깝고 역동적인 4차원의 기하학적 패턴이면 되는 것이다(이나스; 331~332).

따라서 장식과 춤은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일치시키는 감정이입을 위한 추상적 패턴을 만드는 행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외부 세계와 내부세계의 거리는, 벤야민이 강조했듯이, 인간에게서는 별들로부터 확대되며, 그 과정에서 별들과 시선을 주고 받는 생명들과 사물들이 모두 그 거리에 포함되며, 인간은 별들로부터 확장된 외부세계와 내부세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추상적 패턴을 발달시킨다. 이럴 경우 감각의 95%를 시각과 청각에 의존하는 인간의 경우 시각적 미메시스와 청각적 미메시스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3) 이나스는 시각적 모방이 동물에게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넙치는 다른 동물에게 바다 밑바닥 모습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자신이 피부로 만들어내는 기묘한 동물이다. 심지어 넙치를 체스판 위에 올려 놓으면 그 무늬를 베끼려고 당당하게 추상을 시도한다. 그런데 눈을 가리면 무늬를 만들지 못한다(이나스; 336). 동물들은 시각적 모방 이외에도 운율적 모방의 다양한 사례를 보여준다. 소리의 좋은 점은 동물이 스스로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발성의 FAP는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발성은 각성시키는 운동 반사인데, 동물은 실제로 얻어맞았기 때문에 울고, 안으로부터 얻어맞았을 때도 운다. 이 형태의 모방은 아마도 사물을 연관 짓는 최고의 방법일 것이다(이나스; 334~335).

이나스는 이런 사례들로부터 모방에는 두 종류가 있지만 둘 다 내적 추상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하나는 ‘이 소리가 들린다. 일치할 때까지 이 소리를 낸다’와 같은 복제하는(copying) 방법으로서의 모방이 있고 다른 하나는 넙치가 하듯이 자신을 추상해서 다른 동물이 보는 시각적 패턴 안으로 집어넣는 외삽(extrapolation)이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모방에 의해 공통성의 단계가 설정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외삽의 미묘한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이나스; 338). 인간의 경우 대뇌피질이 발달하면서 눈과 손의 협응에 의해 섬세한 신체운동을 복합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진화해 왔고 모방과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동시에 걷고 말하기’가 가능해졌다(이나스; 340).

이제 우리는 이나스의 신경과학적 설명을 매개로 하여 왜 벤야민이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들의 중심에서 양극성이 발생한다고 말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자연적 상응관계로서의 미메시스에는 한편에는 자신을 환경 속으로 외삽하는 극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내부에서 눈과 손의 협응과 같은 내적인 극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나스의 도움으로 감정적 추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미메시스의 능력의 양극성이 왜 신체 전체를 우회로로 거치면서 이루어지는지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 미메시스 능력의 핵심은 이나스에 의하면, 운동 감각적으로 동물을 그 자신에게 하나의 전체로 비추어 주며 외부 세계의 맥락 안에 자신을 배치(외삽)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FAP를 억누르기 위한 시상피질계의 진화와 연관된다. 이 능력이 ‘자아’를 추상하는 능력과 결

합되면 많은 동물에서 복잡한 꿈틀거림 운동으로 이루어진 탈출 행동이 된다 이 행동은 동물이 예기치 않은 문제나 어쩌다 꿈쩍 못하게 붙들린 상태에서 스스로 빠져 나가도록 도와준다 그런 행동을 하려면 동물은 자신을 가둔 맥락 안에 들어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구속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걷기나 굽기, 씹기를 유발하는 일상적이고 부적당한 FAP를 억누르는 일련의 운동 해법도 적용해야 한다(이나스; 347).

### 미메시스와 어포던스의 비교

이렇게 신경과학적으로 재해석된 벤야민의 미메시스 이론이 어떻게 어포던스 이론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이하 Gibson; Chapter 1).

깁슨에 의하면, 환경은 동물들의 주변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동물들의 주변공간에는 식물이나 비생물체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동물들은 자신의 물질적 환경의 실체나 대상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 그들 사이의 차이를 구별해야 하며, 먹이와 포식자, 자신과 같은 종과 다른 종, 암컷과 수컷을 구별해야 한다. 환경과 동물은 불가분의 짝을 이루며, 각각이 상대를 함축한다. 동물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 없이는 존재 할 수 없고, 환경 역시 둘러싸인 동물이나 생명체를 함축하고 있다. 깁슨은 이런 이유에서 생명이 전개되기 이전의 지구 표면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의 물리적 실체, 우주의 한 부분이며, 지질학의 주제일 뿐이라고 말한다. 환경과 동물의 상호성은 물리학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동물은 환경을 지각하고, 환경 속에서 행동한다. 물리학의 세계는 원자에서 지상의 물체들을 걸쳐 은하계에 이르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이 존재하는 크기의 수준은 동물의 크기를 포함하는 중간적인 지상적 스케일에 국한된다. 킬로미터 수준에서 지구는 산과 언덕에 의해 형태화된다. 미터의 수준에서 지구는 협곡과 계곡과 절벽과 나무에 의해 형성되며, 밀리미터 수준에서는 자갈과 수정과 흙과 나무와 풀잎과 나무 세포들에 의해 보다 정교하게 구조화된다.

이 모든 것들이 지상의 환경의 구조적 단위들이다. 보다 작은 단위들은 <차례

로 끼워 넣기>(nesting)에 의해 더 큰 단위에 묻혀 있다(embedded). 가령 계곡은 산에 끼워져 있고, 나무는 계곡에, 나뭇잎은 나무에, 세포는 나뭇잎에 끼워져 있다. 이런 방식으로 사물은 다른 사물의 구성 요소이며 사물들은 범주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전이와 중첩으로 가득 찬 방식으로 위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에는 원자적 단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하위의(subordinate), 그리고 상위의(superordinate) 단위들만이 있을 뿐이다. 동물의 감각 기관, 지각 체계는 원자나 은하계를 감지할 수 없지만, 자신들의 한계 내에서 특정한 범위의 사물과 사건들을 감지할 수 있다. 충분히 멀리 떨어지면 산을 볼 수 있고,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면 한 줌의 모래를 볼 수 있다. 이것이 현미경이나 망원경, 말과 글쓰기를 사용한 간접적 지각이 아니라 직접 지각이다.

동물의 지각은 공간적으로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그 측정 크기가 제한되어 있다. 인간 관찰자는 산의 침식과정을 지각할 수 없지만, 바위가 떨어지는 것은 감지할 수 있다. 그들은 원자 속에서 전자의 이동을 볼 수 없지만, 방안의 의자의 이동을 보고할 수 있다. 같은 일이 지속에 대해서나 빈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변화와 이행의 비율은 지각 가능성의 한계 내에 있다 동물들은 추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과정, 변화, 시퀀스 등을 지각한다. 지상적 과정들은 중간 크기의 지속 수준에서 발생하며, 시퀀스적 구조를 지닌 자연적 단위들이고 사건들이 사건들 속에 끼여져 있다. 그러므로 시간적 구조에는 기초적인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동물들의 행동의 지속은 환경적 사건의 지속과 비교될 수 있다. 따라서 지상적 환경과 지상적 사건들의 자연적 단위들은 기계적 측정에 의한 시간과 공간의 단위와는 다르다. 후자는 자의적이며 관습적인 것이다. 환경은 어떤 면에서는 영구불변하며 다른 면에서는 변화한다. 가령, 거실은 벽과 천장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변하지만, 가구의 배열은 항상 변화한다. 변화의 아래에는 불변성이 깔려 있다. 물론 불변성은 상대적이며, 하루에 걸친 지속인가 일 년에 걸친 지속인가, 혹은 천 년에 걸친 지속인가에 달려 있다. 어떤 것도 영원히 불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변화 속의 불변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요점은 지속과 변화, 불변하는 것과 가변적인 것은 각각 상대에 대해 상호적인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부분들이 변하지 않고 움직임이 없는 전적으로 불변하는 환경은 완전히 경직된 것일 것이기에 더 이상 환경이 될 수 없다. 그런 곳에서는 동물이나 식물이 없

을 것이다. 그 반대의 극에서 모든 부분들이 항상 변화하고 있는 환경 역시 환경이 될 수 없다. 이 양 극단에서도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는 존재하겠지만 거주자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환경에서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작은 단위가 큰 단위에 끼여 있는 <끼워 넣기>의 위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듯이 변화하는 것이 변화하지 않는 것의 단위 속에 끼여 있는 위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지구 위에 떨어지는 에워싼(ambient) 빛의 배열의 구성 요소들은 산과 계곡과 나무와 나뭇잎들로부터 나오는 시각적 앵글들이며, 지평선에서는 작게 소멸하며, 관찰 시점이 움직일 때마다 크기가 변화한다. 그러나 지구의 실제적 성분들은 크기가 변화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집은 모든 광학적 배열이 한 점에서 간섭하는 광선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정점을 지닌 고정된 앵글들이 끼워진 위계로 본다. 각각의 고정된 앵글은 고유한 성격을 갖는 데 반해, 하나의 광선은 고유하지 않으며 임의적으로 재단될 수 있다. 모든 고정된 앵글들의 공통의 정점을 이루는 지표면의 원의 구조는 빈틈없이 앵글 속의 앵글들로 채워져 있다. 이 때문에 빛의 배열은 광학적 점의 집합들로 분석될 수 있는 매트릭스라기보다는 에워싼(ambient) 빛의 위계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하늘의 별들은 북쪽의 오른쪽으로 향한 정도와 수평선으로부터의 높이의 정도에 의해 편의적으로 위치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별은 성좌들 중의 하나로 포함됨에 의해, 그리고 전체 하늘의 상위 패턴에 의해 위치될 수도 있다. 그와 유사하게 나뭇잎들과 나무들과 언덕들에 상응하는 광학적 구조는 각기보다 큰 구조에 포함될 수 있다. 물론 지구의 재질은 떨어져 있는 별들의 성좌에 비하면 밀도가 높기 때문에 함께 배치된 시스템에 덜 의존적이다(Gibson; 68).

집은에 의하면 어포던스란 환경이 동물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들(영토, 거주지, 불, 대상, 도구, 다른 동물과 인간의 설치물 등)이다. 그리고 지상의 표면의 구성요소와 윤곽이 그것들이 제공하는 바를 구성한다면 그것들을 지각하는 것은 그것들이 제공하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 스스로 이것을 급진적 가설이라고 보는데, 환경 속의 사물의 “가치”와 “의미”가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의미와 가치가 지각자에게 외부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포던스는 동물과 환경의 상보적 성격을 함축한다(Gibson; 127). 환경의 상이한 실체들은 영양과 제작에 필요한 상이한 어포던스를 가진다. 환경의 다른 대

상들은 조작을 위해 필요한 다른 어포던스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다른 동물들은 성적 상호작용과 포식, 양육, 싸움, 놀이, 협동과 의사소통의 풍부하고 복잡한 세트를 제공한다.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의미 영역 전체를 포괄한다(Gibson; 128).

깁슨은 이런 맥락에서 지각은 개인의 의식의 무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행동의 성취라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의 경험을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물들을 경험하는 것이자. 환경과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지각은 단지 앎이 아니라 <~에 대한 앎>을 포함한다. 지각은 정신적인 행동만도 신체적인 행동만도 아니다. 지각한다는 것은 신체나 정신이 아니라, 살아 있는 관찰자의 <정신신체적>(psychosomatic) 행동이다. 더구나 정보를 <끄집어내는>(picking up) 행동은 하나의 지속적인 행동이며, 쉴 새 없고 중단되지 않는 행동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에너지의 바다는 중단 없는 변화들로 가득 차 있다. 눈과 귀와 코와 입과 피부의 수용기에 영향을 주는 아주 작은 에너지의 반응도 하나의 흐름이지 시퀀스는 아니다. 수면 중에는 이 기관들의 탐색과 지향과 조정 행위가 최소한으로 가라앉지만 그러나 죽은 듯이 멈추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지각은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듯이 하나의 흐름이다. 지각의 연속적인 행동은 자아의 공동지각을 포함한다(Gibson; 239~240).

이렇게 볼 때 지각은 고립될 수 있는 단순한 의식 현상이 아니라 외견상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몸과 마음과 어포던스를 하나의 동시적인 순환고리로 연결하는 생태학적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렐라의 제자인 에반 톰슨 역시 이런 점에서 어포던스를 현상학적 지향성의 사례로 이해하며 이를 발제적 행위와 비교한다(Thompson; 247~248). 물론 이런 연결행위는 긍정적 어포던스와 부정적 어포던스를 구별하는 행위이기도 할 것이다.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곧 환경이 주는 긍정적 어포던스를 찾아내고 부정적 어포던스를 피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 미메시스를 “어느 한 시점의 전체 상태에 자신을 유사하게 만드는 능력”이자 “적응 행위”로 규정하는 (벤야민(2), 322) 벤야민의 미메시스 개념은 깁슨의 관점과 일치할 수 있다.

그러나 벤야민이 생각하는 미메시스 개념에는 다른 역사가 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유사성을 파악하는 능력은 유사해지고 또 유사하게 행동하려는 예전의 엄청난 강압의 미약한 잔재에 불과하다 지금은 사라져 버린 유사해지는 이 능력은 우리가 유사성을 볼 수 있는 좁은 지각 세계를 훨씬 넘어서 있었다. 수천 년 전 전체 상태가 인간 존재에게, 그가 태어나는 순간에 작용한 힘들이 나중에 유사성의 토대를 이루게 된 것이다”(벤야민(3); 207)

벤야민이 말하는 미메시스 능력의 쇠퇴는 자본주의 문명의 발전과 함께 도시적인 인공적 어포던스와의 접촉이 증가함에 비례하여 자연 환경이 주는 어포던스의 풍부함을 지각하고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벤야민은 이런 능력들의 약화를 한탄하는 데서 머물지 않으며 이런 능력들이 “언어로 밀려 들어와 남아 있는 흔적”을 찾는다. 그는 당대의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를 섭렵하면서, “음성학적 요소는 표정적이고 제스처적인 요소에 바탕을 둔다”(벤야민(4); 257)거나, “소리는 어떤 시각적이면서 그 자체로 이해 가능한 제스처 언어를 음향적으로 지원하는 부수현상일 따름”(벤야민(4); 257)이라거나, “발성된 언어가 근본적인 동물적 본능의 한 형식, 즉 신체를 통한 표정적 표현운동이라는 본능의 한 형식일 뿐이라는 주장”(벤야민(4); 259), “언어 표현과 춤의 표현의 뿌리를 동일한 하나의 미메시스적 능력에서 보는 견해”(벤야민(4); 260), “다른 학자들이 언어의 의미론적 기능에 몰두하다가 그 언어에 내재하는 표현적 성격 언어의 관상학적 힘들을 망각했다면, 이 후자의 요소들은 꽤것에게 전자의 기능보다 더 멀리 펼쳐질 가치와 능력이 있는 듯이 보인다”(벤야민(4); 261)거나 하는 주장들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좁은 의미의 미메시스적 이론이라고 칭할 수 있는 낙후된 의성어적 이론에 대해 매우 넓은 의미의 미메시스적인 이론”을 “맞서게” 한다(벤야민(4); 259).

그렇다면 이렇게 넓은 의미의 미메시스 이론을 힘겹게 발굴하려는 작업의 효과는 무엇일까? 벤야민은 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인용으로 답하고 있다 “정상인에게서도 언어는 단지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그러나…… 인간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속한 동류의 인간들에게 갖는 어떤 생생한 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자마자 언어는 더 이상 어떤 도구, 더 이상 어떤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내밀한 본질과 정신적 유대, 우리를 우리 자신과 우리의 동류 인간들과 결합해주는 그러한 유대의 발현이자 현시가 된다.”(벤야민(4); 262~263) 여기서 도구로서의 언어가 환경과 사물이 주는 다양한 어포던스들의 지각-행위에 국한된다면, 인간들 간의 정신적 유대를 만들어주는 언어는 오직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어포던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벤야민이 복원하려는 넓은 의미의 미메시스 능력은 바로 이 후자인 셈이다. 그런데 인간들 사이의 정신적 유대의 표현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설명은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가 제시하는 3차등급의 자기생산 체계에 대한 설명에서 더욱 구체화될 수 있다.

### 미메시스와 오토포이에시스 간의 비교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에 의하면 사회적 현상이란 3차 등급의 구조접속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사회적 체계란 그렇게 생겨난 3차 등급의 개체이다. 사회적 체계가 생겨났다는 것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구조접속 곧 공동개체발생이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사회적 개체의 구성원들이 조정된 행동방식을 유발하는 일을 ‘의사소통’이라 부른다.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는 타고난 사회적 행동과 배운 사회적 행동을 구분할 수 있듯이, 의사소통의 계통발생적 형태와 개체발생적 형태도 구분한다(마투라나 외; 199~200). 사회적 환경이 지닌 의사소통적 역동성의 틀 안에서 개체발생적으로 생기고 여러 세대에 걸쳐 안정하게 남아 있는 행동양식을 가리켜 ‘문화적 행동’이라고 부른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집단 안에서 개체들이 어떤 행동을 흉내 내고 또 그 행동이 그것의 작업효과가 되풀이하여 확인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선택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어린 것들과 다 자란 것들 사이에 접속이 생긴다. 그럼으로써 일정한 개체발생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인간 영역에서 나타난 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문화적 현상이라 부른다. 따라서 문화적 행동이란 무슨 특별한 기제를 통해 생긴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적 행동의 특수한 예일 뿐이다(마투라나 외; 203~210).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는 이렇게 개체발생적이고 의사소통적인 행동을 언어적 행동이라고 부른다. 언어적 영역은 보통 가변적이며, 그것을 산출하는 유기체들의 개체발생과 함께

변화한다(마투라나 외; 216). 이들은 이런 특징들의 중첩을 다음과 같이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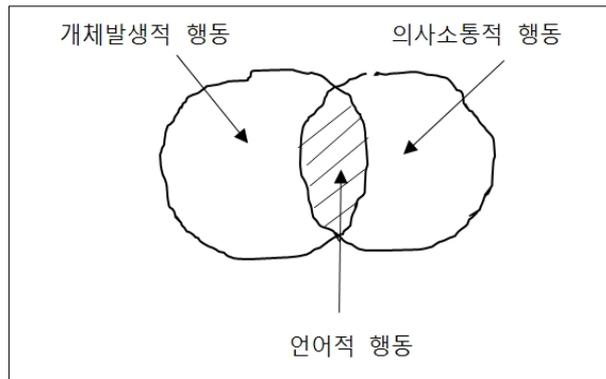


그림 1. 언어적 영역 (마투라나 외: 216)

이런 설명은 벤야민이 말한 넓은 의미의 미메시스적 행위의 생물학적, 사회적 발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에 의하면 말이란 따로 떨어진 행동 단위들로 된 것이 아니라 줄곧 ‘말 안에 있는’(in-der-Sprache-sein) 과정이다(마투라나 외; 218). 말은 언어적 상호작용들의 재귀 과정을 통해, 곧 행위의 언어적 조정의 언어적 조정을 통해 생기는 현상이다. 이때문에 언어적 영역은 행위의 언어적 조정이 일어나는 환경의 일부가 되며, 말은 관찰자에게 <기술의 기술>이 행해지는 영역으로 나타난다. 관찰이란 공동개체발생 속에서 행위하는 기술의 기술로서 말과 함께 생긴다. 또 말과 함께 말할 줄 아는 존재인 관찰자가 생긴다.

말 안에서 다른 관찰자와 함께 작업하는 관찰자는 자기가 참여하는 언어적 영역 안에서 ‘나’와 ‘내 주위 사정’을 언어적 구분으로써 산출한다. 이런 방식으로 언어적 구분들의 관계인 ‘뜻’이 생긴다. 그리고 뜻은 우리들의 적응을 보존하는 영역의 일부가 된다. 이 모든 것들 것 ‘사람다움’에 담겨 있다(마투라나 외; 219). 곤충의 사회적 체계의 응집은 화학적 상호작용(영양의 흐름)에 바탕을 둔다. 인간의 경우 사회적 체계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말의 흐름’(Linguolaxis), 언어적 영양의 흐

름, 곧 행위의 개체발생적 조정을 통해 생긴 언어적 영역이다. 우리들은 오직 말 안에서만 사람다운 존재다(마투라나 외; 220).

말 안에서만 인간이 사람다울 수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벤야민도 “인간에게 미메시스 능력은 점점 더 언어로 철수해 들어가서 더욱 은밀하게 키워졌다”(벤야민(2); 322)고 말한다. 그러나 벤야민에게서 언어의 중요성은 신체와 고립된 언어 자체의 영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신체의 협응손에서 신체를 거쳐 입에 이르는 과정들의 협응)에 있다는 점을 환기할 때,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가 언어적 행위를 언어 안에서만 파악하려는 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벤야민은 폴 발레리의 말을 빌어와, 예술적 관찰과 실천에서는 영혼과 눈과 손이 한데 어울려 생겨가는 어떤 화음에 의해서만 그 존재와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독자적인 명암체계가 있듯이, 이야기꾼의 이야기에서도 결코 목소리만이 아니라 노동에 의해 익혀진 수백 가지의 표현을 담고 있는 손도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벤야민(5); 193).

“이러한 실천은 오늘날에는 보기 힘들게 되었다. 생산에서 손이 하는 역할은 점점 줄어들었고, 또 손이 이야기를 하면서 채웠던 공간은 황량하기 그지 없게 되었다……발레리의 말에서 나타나는 저 해묵은 **영혼과 눈 및 손의 상호결합**(강조점 필자)은, 이야기하는 솜씨에 정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수공업적 협동인 것이다. 아니 우리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얘기꾼에 있어서는 그의 재료, 즉 그의 삶과의 관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수공업적 관계가 아닐까 하고 자문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얘기꾼이란 그의 삶의 심지를, 조용히 타오르는 그의 얘기의 불꽃에 의해서 완전히 연소시키는 그런 사람이다.”(벤야민(5); 194)

여기서 벤야민의 요점은 언어 속으로 철수해 들어간 미메시스 능력에 본래 포함되어 있는 “영혼과 눈과 손의 상호결합”이라는 보이지 않는 관계망을 다시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벤야민은 그런 관계망이 의사소통의 수공업적 형태가 유지되는 동안은 존속했다고 기술한다.

“수공업의 주위에서 - 그것은 처음에는 농촌적 형태였다가 나중에는 해양적 수공업, 마지막에는 도시적 형태로 발전하였다 - 오랫동안 번성했던 얘기 그 자체는 이를 테면 의사소통의 수공업적 형태이다. 얘기는 정보나 보고처럼 사물의 순수한 <실체>를 전달하려고 하지 않는다. 얘기는 보고하는 사람의 삶 속에 일단 사물을 침잠시키고 나서는, 나중에 가서 다시 그 사물을 그 사람으로부터 끌어낸다. 그래서 얘기에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마치 옹기 그릇에 도공의 손 흔적이 남아 있는 것 과도 같은 것이다.”(벤야민(3); 175)

문제는 이런 재능이 수공업의 소멸과 더불어 사라졌고 귀 기울여 얘기를 듣는 공동체도 사라졌다는 데에 있다(벤야민(3); 174). 벤야민이 보기에, 그 대신 사람들이 귀담아 듣는 것은 더 이상 먼 곳으로부터의 소식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재빨리 검증되어야 할, 그 자체로 이해될 수 있는 정보이다. 정보는 오로지 그 저 한 순간 속에서만 생명력을 가지며 그 순간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야기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이야기는 스스로를 완전히 소모하지 않으며, 자신이 지닌 힘을 집중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뿐더러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다시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벤야민(3); 173). 바로 이런 능력이 바로 “경험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166)인데, 전략적 전쟁을 대신한 진지 전쟁, 경제적 경험을 대신한 인플레이션, 육체적 전쟁을 대신한 물량 전쟁, 이라고 할 일차세계 대전 이후 이런 능력의 박탈이 명백해지기 시작했고 이후 경험의 가치 하락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벤야민(3); 166).

“아직도 말이 끄는 차를 타고 학교에 다녔고 또 구름 이외에는 변하는 것 이라곤 하나도 없는 시골의 맑은 하늘 아래에 서 있던 세대들에겐 파괴적인 분출과 폭발이 지배하는 역사 속의 구름 아래에서는 보잘 것 없고 부서지기 쉬운 인간의 몸뚱아리 밖에 남은 것이라곤 없었던 것이다.”(벤야민(3); 166)

그렇다면, 유럽에서는 1차대전을 경유하면서, 한국사회로 보자면 60~90년대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소멸되어 버린 의사소통의 수공업적 형태, 그리고 그와

함께 사라진 “경험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 즉, 넓은 의미의 미메시스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과거의 시간이 단지 지나가 버리기만 하는 것이라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진화는 대체의 과정이 아니라 축적의 과정이기도 하다. 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한 마투라나와 바렐라의 구조접속은 1차등급-->2차등급-->3차등급으로 진화하지만 후자는 전자를 버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자를 포함하면서 더 복잡하게 진화하는 것이다 이런 포함관계는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가 그린 세 가지 다이어그램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그림의 표제는 필자가 붙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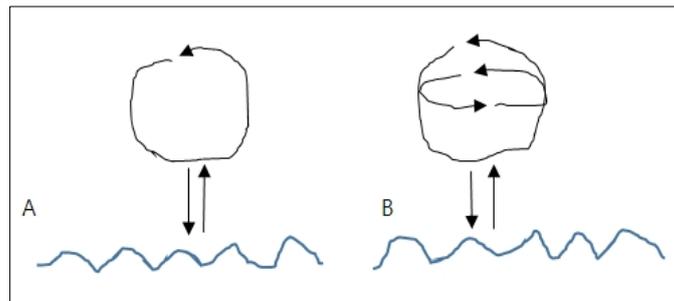


그림 2. 1차등급(A)과 2차등급(B)의 구조접속 (마투라나 외;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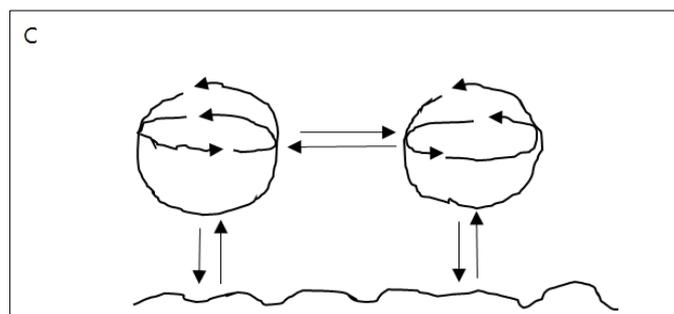


그림 3. 신경계를 가진 유기체 간의 3차등급(C)의 구조접속 (마투라나 외; 186)

그렇다면 3차등급의 구조접속을 하지만 언어를 발달시키지 못한 일반적인 포유류들과 달리 언어영역을 발전시킨 인간의 경우 3차등급의 구조접속이 언어영역에

다시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진화적 관점에서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마투라나와 바렐라(1995)는 언어영역과 3차등급의 구조접속의 관계를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지 않았지만, 이런 맥락에서 양자의 포함관계를 다음과 같이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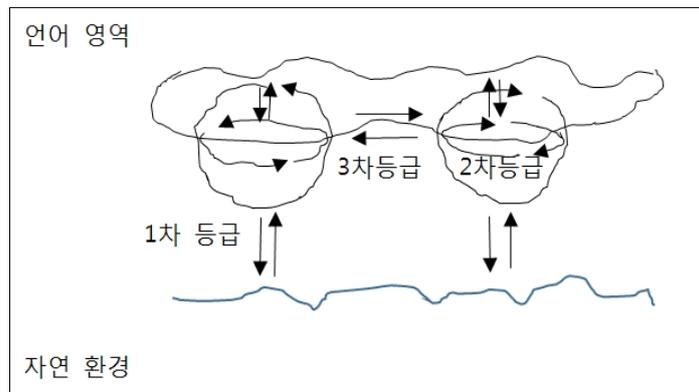


그림 4. 언어영역과 3차등급 구조접속의 포함관계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언어적 조정을 통한 의사소통 행위 속에 3차 등급의 구조접속에 의해 발생한 신경계와 2차등급의 구조접속에 의해 발생한 신체와의 협력 관계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언어 속에는 벤야민이 말하는 신체적 미메시스 능력이 보존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포함관계는 앞서 김슨이 말한 <끼워 넣기>(nesting)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벤야민의 미메시스 개념이 서로 떨어져 있는 어포던스 이론과 오토포이에시스 이론을 매개할 수 있으려면 이런 조정과정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매개 작업은 현대 자본주의 문명 속에서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생태학적 어포던스를 직접 지각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기생산 체계의 자율성을 동시에 보존하고 발달하게 해주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언어와 신체적 미메시스를 분리해서 바라보려는 것은 김슨이 거부했던 외적인 물리적 과정과 내적인 정신적 과정을 인수분해(factoring) 하는 기존의 관점으로 퇴행하는 것과는 유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 미메시스, 어포던스와 오토포이에시스의 변증법적 춤

그러나 현대인들은 벤야민이 말하는 <언어로 스며든 신체화된 미메시스> 능력을 대부분 상실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자연환경 속에 내재한 풍요로운 어포던스의 직접적 지각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 벤야민은 이런 측면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예를 들어 고대에는 사람들이 관상학적인 것에서 오늘날 얼굴의 유사성 정도만 인식할 뿐 신체적 유사성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미메시스적 감각을 지녔다는 것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전승되어 온 것들을 탐구하는 연구자로서 엄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는데, 즉 오늘날 우리가 어렵풋이나마 느끼지도 못하는 어떤 확연한 형상 미메시스적 객관성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별들의 성좌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천궁도(Horoskop)를 하나의 독특한 전체성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천체 상태는 하나의 특성을 지닌 통일체를 나타내며 개개의 행성들은 이 천체 상태에서의 작용 양태에서 그 성격이 인식된다……천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옛날 사람에게는 집단에 의해서든 개인에 의해서든 모방 가능했다……이것의 한 잔영을 오늘날의 사람들도 남쪽 지방의 달밤에 느낄 수 있다. 그런 밤에 현대인들은 죽어버린 미메시스적 힘들이 자신의 존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낄 테지만 자연은 그러한 힘들을 완벽하게 소유하면서도 달 쪽으로 자신을 동화시킨다……그러나……아이들은 실제로 오늘날에도 처음 몇 해 동안은 누가 보아도 언어를 배우는 데서 고도의 미메시스적 천재를 증명해 보인다.”(벤야민(6); 317~318)

하지만 오늘날 미메시스적인 힘들이 이렇게 약화거나 사라져버렸다고 해도 미메시스의 토대가 되는 능산적 자연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또한 미메시스 능력의 약화나 소멸이 어포던스의 직접적인 지각 능력의 약화나 소멸을 의미한다고 해도, 자연은 여전히 다채로운 어포던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언어적 구조접속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람에 신체와 환경의 구조접속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환경과 생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생산 체계의 작동이 약화되고 있다고 해도 그

결과보다는 원인과 과정에 눈을 돌린다면, 현대 자본주의 문명 속에서도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눈을 돌린다면 자연과 인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 드물게라도 - 찾아 볼 수 있다.

이렇게 현대 사회가 배제해가고 있는 생명의 원천에 다시 주목하려면 외부와 내부, 자연과 인간, 신체와 언어를 인수분해 하려는 환원주의적인 관점을 버리고 환경-몸-두뇌-마음의 순환 관계를 변증법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형성 당시의 열기가 사라지고 이제는 단지 유명 브랜드로만 기억되는 어포던스 이론과 오토포이에시스 이론의 원천으로 되돌아가서 양자 사이에 내재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재확인하고, 그보다 더 오래된, 그러나 지금 보아도 인문학적-철학적 통찰들로 넘쳐 흐르는 벤야민의 미메시스 이론을 통해 양자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간격을 연결하려는 이론적 시도가 적극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이런 이론적 매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사고실험을 제안해 보려 한다. 이 사고 실험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이제까지의 분석을 통해 하나의 <실험 가설>을 설정하고, 일상생활 속에 이 가설에 적합한 형태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관찰해 봄으로써 이 가설의 타당성을 사고 상으로 실험해보기

### 실험 가설

1-1. 환경과 생물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은 어포던스 이론의 관점에서 이해되거나 오토포이에시스 이론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어포던스 이론은 환경이 생명체에게 제공하는 바에 초점을 두고 있고 오토포이에시스 이론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생명체가 자기 생산해내는 바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환경과 생명체의 상호작용의 순환적 흐름의 역동성 자체를 밀착해서 포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환경과 생명체의 상호작용은 일정하게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여러 형태의 파괴적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섭동작용으로 인해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에는 긍정적, 부정적, 파괴적인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앞서 벤야민의 사례에서 들었듯이 언어적 구조접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수공업적 의사소통 형태가 자본주의적인 환경 변화로 소멸됨으로써 언어적 구조접속과 신체적 구조접속 능력 간의 연결이 망실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긍정적 부정적 상호작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설명적 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어포던스를 선별적으로 체화배제하면서 자신의 오토포이에시스 능력과 함께 환경 자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인간의 삶의 복잡한 흐름을 미메시스적 행위 능력에 의해 매개된 어포던스와 오토포이에시스 간의 역동적인 피드백 과정이라는 가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는 시스템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자체를 분석하기 위해서, 환경의 일부를 시스템 내부로 흡수하여 시스템의 경계를 확장하거나 혹은 그와 반대로 시스템의 경계가 축소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을 여러 유형의 피드백 루프로 나누어 구별하고 있다(김도훈 외, 58~59). 이런 분석틀을 원용하여 어포던스와 오토포이에시스 간의 상호작용의 피드백 루프 자체를 미메시스라고 설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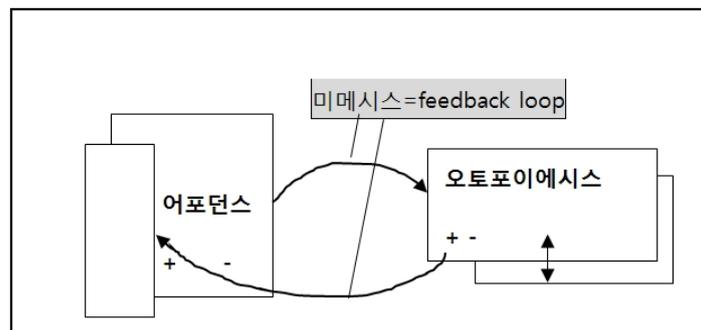


그림 5. 어포던스와 오토포이에시스의 피드백 루프

여기서 어포던스에서 출력되어 오토포이에시스 쪽으로 입력되는 것은 영양분 거주 공간, 햇볕 등과 같이 생존 필수적인 것(+)이거나 혹은 독이나 절벽, 그림자 등과 같이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오토포이에시스에서 출력되어 어포던스 쪽으로 입력되는 것은 나무를 심는 행위 등과 같은 생태계의 보존(+) 방향으로 혹은 숲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과 같이 생태계의 파괴(-)의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1-2.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에 의하면 피드백 고리의 유형에는 음의 피드백 고리(negative feedback loop)와 양의 피드백 고리(positive feedback loop), 선순환(virtuous circle)과 악순환(vicious circle), 정체화(stagnating circle)와 안정화(stabilizing circle) 등이 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 고리들을 범주화하면 선순환 고리와 악순환 고리는 양의 피드백 고리에, 정체화 고리와 안정화 고리는 음의 피드백 고리에 속하는 것으로 구별된다(김도훈 외; 154). 환경이 제공하는 어포던스와 생명체의 오토포이에시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생태계의 유지와 생명체의 적응과 보존에 이점을 줄 경우를 가치의 강화로, 생태계의 파괴와 생명체의 적응과 보존에 해가 될 경우를 가치의 약화로 구분하여 네 가지 고리를 하나의 표에 통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피드백 고리의 유형표

| 피드백 \ 가치 | 가치의 약화 | 가치의 강화 |
|----------|--------|--------|
| 양의 피드백   | 악순환    | 선순환    |
| 음의 피드백   | 정체화 고리 | 안정화 고리 |

환경이 제공하는 어포던스와 생명체의 오토포이에시스 간의 상호작용은 가치의 강화 혹은 약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생(선순환)할 수도, 상극(악순환)을 이룰 수도, 정체 상태에 머물 수도, 안정적인 상태를 이룰 수도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양자의 관계가 대립적이면서도 합일로 전화될 수 있는 방식의 운동 양태를 철학에 서는 <변증법적>이라고 불러 왔다<sup>4)</sup>.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벤야민은 미메시스의

4) 철학사를 더듬어 보면 ‘변증법’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시대에는 하나의 테마에 대해 대화와 문답을 통해 공동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중세에는 형식논리학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다가, 헤겔에 이르러 실재하는 대립과 모순을 원동력으로 하여 변화발전하는 사물의 논리이자 그와 같은 사물을 인식하기 위한 학적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헤겔사전; 151). 헤겔의 변증법적 운동은 통상 정-반-합의 단계로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헤겔 자신이 지향한 것은 운동과 변화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운동 그 자체의 논리, 생생하게 된 직관을 학적으로 설명하는 논리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변증법적 논리를 헤겔의 관념론과 신비주의로부터 떼어내어 과학적이고 명석한 논리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헤겔사전; 153).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헤겔식의 정-반-합의 형태가 아니라, 서로 대립하면서도 맞물려 있는 두 극 사이에서 상

변증법적인 성격, 즉 멀리 떨어진 외부와 내부라는 양극 사이의 자연적 상응관계가 전도되는 여러 양태에 주목했었던 바, 이 표의 네 가지 유형이 바로 이런 자연적 상응관계의 여러 양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벤야민이 말한 미메시스를 <어포던스와 오토포이에시스의 변증법적 춤>이라고도 지칭할 수 있겠다.

알바 노에는 의식을 세계 속에서 펼치는 하나의 춤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의식이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고 만드는 어떤 것이다. 의식은 소화 행위(digestion)와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춤추기(dancing)와 같은 것”(Noë; xii)이며, “인간의 경험이란 세계 속에서 타자들과 함께 펼치는 춤”(Noë; xiii)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식의 춤을 변증법적이라고 보자는 것은 이 춤이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어포던스와 오토포이에시스 간의 상호작용이 선순환과 악순환 정체와 안정화와 같이 상반된 형태의 대립적인 국면들을 반복해서 펼쳐 보인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려는 것이다.

#### 일상적 경험의 여러 유형에 대한 관찰

2-1. 위의 네 가지 고리들을 일상의 경험의 여러 유형에 적용하기 위해 ‘고리’(loop)라는 명칭을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드’(mode)라는 명칭으로 바꿔 사용해 보도록 하자. 두 사람이 함께 대화를 하며 숲을 거닐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정체 모드 = 친구/애인과 함께 얘기를 나누며 숲을 걷거나 등산을 할 경우, 숲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친구 의견에 동조하거나 반박하는 데에만 온통 신경을 쓸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나는 환경이 제공하는 어포던스를 무시하고 오직

---

생과 상극과 정체와 안정화의 다양한 양상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상호작용의 운동 자체를 변증법적이라고 보고 있고 벤야민이 바로 이런 의미로 변증법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 벤야민이 말하는 <정지상태의 변증법>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극, 즉 구체적인 사물의 이미지와 가장 추상적인 이념이 서로 선순환 고리를 이루는 특정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광현(2013) 참조.

오토포이에시스 모드에 전념하고 있는 셈이다. 그와 반대로 친구애인이 심각한 얘기를 하던 중에 무심코 위를 쳐다보았는데 숲 위쪽으로 비치는 햇빛에 소나무 가지들과 솔잎들이 반사되면서 에워싼(ambient) 빛이 제공하는 풍요로운 어포던스에 사로 잡혀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놓치고 건성으로 대답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이때는 순간적으로 어포던스 모드에 몰입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어포던스와 오토포이에시스 둘 중의 한쪽으로부터 초점이 주어져 양자의 상호작용의 흐름은 정체된다.

2) 악순환 모드 = 내가 건성으로 대답해서 친구애인이 화를 내는 바람에 나도 기분이 급하락 하여 분위기를 바꾸려고 식당에 들어갔다가 서비스도 엉망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앉아 있을 경우, 둘 사이의 분위기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오토포이에시스와 어포던스는 악순환 상태에 처하는 셈이 될 것이다.

3) 선순환 모드 = 식당에서 나오자 갑자기 비가 쏟아져 흠뻑 젖을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되면 일단 식당 내에서의 악순환 모드가 중단될 것이다. 이때 갑자기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환한 햇빛이 쏟아지며 숲 전체가 물기에 젖어 더 생생하게 에워싼 빛으로 환하게 물들 때, 나와 친구애인의 기분이 상쾌해지면서, 새로운 어포던스에 대해 즐겁게 대화하는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 이 경우 악순환 모드는 정체 모드를 거쳐 선순환 모드로 전환되는 셈이 될 것이다.

4) 안정화 모드 = 환하게 비치는 숲을 계속 거닐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나무들과 구름, 숲 속의 새들의 지저귀이 서로의 눈에 들어오고 둘 사이의 대화는 안정적으로 기분 좋게 진행 될 수 있다. 이 경우 선순환 모드는 안정화 모드로 전환되는 셈이 될 것이다.

2-2. 혼자서 도시를 걷거나 여행할 경우에도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아래와 같이 네 가지 모드가 나타날 수 있다

1) 정체화 모드 = 어떤 급박한 과제에 온통 정신이 팔려 길을 걷는 사람은 지나쳐 가는 풍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다. 또는 반대로 낯선 곳의 풍경에 매료되어 약속 시간을 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 악순환 모드 = 기분이 몹시 상해서 집밖으로 나와 산책을 하는데 날씨가 나

빠지면서 황사까지 겹칠 경우 기분은 더 황량해 질 수 있다.

3) 선순환 모드 = 혼자 여행하면서 차창 밖의 멋진 풍경을 보면서 책을 읽다가, 낯선 역에 내려, 여러 곳을 다니며 여행지의 새로운 어포던스를 발견하고 향유하면서 복잡했던 머리가 상쾌해지고 삶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몸과 마음이 활력을 얻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4) 안정화 모드 = 여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갱신한 후 일상 속에서 새로운 어포던스를 발견하려는 습관이 들고, 그럴 때마다 일과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하면서 몸과 마음이 안정을 얻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 나가며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와 유사한 경험들을 떠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험들을 <어포던스와 오토포이에시스의 변증법적 춤>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해 본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들은 네 가지 모드가 끊임없이 교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체화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 선순환과 안정화 고리로 모드 전환을 이루는 것이 삶을 갱신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실감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정체화 고리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군중 속을 불가피하게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포던스 모드를 포기하고 오토포이에시스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수 있기 때문이며, 기분이 극도로 나쁘거나 골치가 아플 때는 가령 등산을 하면서 에워싼 빛 속에서 자연의 풍요로운 어포던스를 만끽하는 것이 기분 전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글의 모두에서 밝혔듯이, 어포던스 이론과 오토포이에시스 이론은 환경과 생명체를 분리해서 보는 대신 양자의 상호작용이라는 토대 위에서 각각의 이론을 구축했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전자는 환경이 주는 다양한 어포던스에, 후자는 생명체의 자기 생산의 자율적 메커니즘에 상대적으로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앞서의 간단한 사고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듯이, 생활 속에서 우

리의 삶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모드들로 이루어진 역동적인 리듬을 타면서 전개되고 있다. 실제 삶의 역동적 흐름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포던스와 오토포이에시스 이론 둘 중 어느 하나로 환경과 생명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가 어렵고, 번갈아 가면서 모드가 전환되는 방식으로 환경과 생명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것이 삶의 실제적인 맥락과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층위를 가진 환경과 생명체(몸-손-눈-입-마음)라는 두 극 사이에서 번갈아 가면서 초점이 전환되는 역동적인 양상을 하나의 개념으로 포착하기 위해 벤야민의 미메시스 개념을 매개 고리로 제안하였다(끝).

### 참고문헌

- 심광현 (2013), 「정지상태의 변증법과 신체화된 미메시스의 미학과 정치」, 『2013년 벤야민 커넥션 자료집』, 길출판사, 2013.3.10(서울 정독도서관)
- 최성만 (2008), 「발터 벤야민 사상의 토대: 언어-번역-미메시스」 (윤희인 해제), 『발터 벤야민 선집 6』, 최성만 옮김, 길출판사
- 스튜어트 이라 폭스 (2008), 『생리학 10판』, 박인국 옮김, 라이프사이언스
- 로돌포 이나스 (2007), 『꿈꾸는 기계의 진화: 뇌과학으로 보는 철학 명제』, 김미선 옮김, 북센스
- 발터 벤야민(1) (2008), 「미메시스 능력에 대하여」, 『발터 벤야민 선집 6』, 최성만 옮김, 길출판사
- \_\_\_\_\_ (2) (2008), 「유사성론」과 「미메시스 능력에 대하여」 관련 노트들, 『발터 벤야민 선집 6』, 최성만 옮김, 길출판사
- \_\_\_\_\_ (3) (2008), 「유사성론」, 『발터 벤야민 선집6』, 최성만 옮김, 길출판사
- \_\_\_\_\_ (4) (2008), 「언어사회학의 문제들」, 『발터 벤야민 선집6』, 최성만 옮김, 길출판사
- \_\_\_\_\_ (5) (1990), 「얘기꾼과 소설가」,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옮김, 문예출판사
- \_\_\_\_\_ (6) (2008), 「점성술에 대하여」, 『발터 벤야민 선집6』, 최성만 옮김, 길

출판사

- 요아힘 바우어 (2012), 『공감의 심리학』, 이미옥 옮김, 에코리브르
- 움베르토 마투라나/프란시스코 바렐라 (1995), 『인식의 나무: 인식활동의 생물학적 뿌리』, 최호영 옮김, 자작아카데미
- 가토 히사타케 외 엮음 (2009), 『헤겔 사전』, 이신철 옮김, 도서출판b
- James J. Gibson (1986),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Psychology Press, Taylor & Francis Group, LLC.
- Francisco J. Varela, Evan Thompson, and Eleanor Rosch (1993), *The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MIT Press paperback edition
- Evan Thompson (2007), *Mind in Life: Biology, Phenomenology, and the Science of Mind*,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Alva Noë (2009), *Out of Heads: Why You Are Not Your Brain, and Other Lessons from the Biology of Consciousness*, Hill and Wang, A Division of Farrar, Straus and Giroux, New York

1차원고접수 : 2014. 12. 10  
1차심사완료 : 2014. 12. 22  
최종게재확정 : 2014. 12. 23

(Abstract)

**Autopoiesis, Affordance, and Mimesis:  
Layout for Explication of Complexity of Cognitive  
Interaction between Environment and Human**

Shim, Kwang Hyu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Department of Cinema Studies

In order to unravel the problems of the mind, today's cognitive science has expanded its perspective from the narrow framework of the past computer model or neuronal network model to the wider frameworks of interaction with the brain in interaction with the body in interaction with their environments. The theories of 'the extended mind', 'embodied mind', or 'enactive mind' appeared through such processes are working on a way to move into the environments while the problem to unravel the complex process of interactions between the mind, the body and the environments are left alone. This problem can be traced back as far as to Gibson and Maturana & Varela who tried at first to unravel the problem of the mind in terms of interaction between the brain, the body and their environments in 1960~70s. It's because Gibson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affordance' provided by the environment while Maturana & Varela emphasized the 'autonomy' of auto-poiesis of life. However, it will be proper to say that there are invariants in the affordances provided by the environment as well as the autonomy of life in the state of structural coupling of the environment's variants and life's openness toward the environment. In this case, the confrontational points between Gibson and Maturana & Varela will be resolved. In this article, I propose Benjamin's theory of mimesis as a mediator of both theories. Because Benjamin's concept of mimesis has the process of making a constellation of the embodiment of the affordance and the enaction of new affordance into the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Gibson's concept of the affordance and Maturana & Varela's concept of embodiment and enaction will be so smoothly interconnected to circulate through the medium of Benjamin's concept of mimesis.

*Key words : Autopoiesis, Affordance, Invariants, Mimesis, Mirror Neuron, System Dynamics, Dialectic*